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삼지연군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문화회관을 현지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618건설돌격대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삼지연군문화회관이 예술공연, 회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 등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게 훌륭히 꾸려진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의자에 앉으시여 군예술소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가, 영화상영은 어떻게 하는가, 사진전시회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 등 문화회관의 관리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 학생소년궁전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 학생소년궁전의 정면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바라보시면서 궁전소조원들이 한평생 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던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을 늘 비울수 있게 정중히 잘 모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수확소조실, 자동차소조실, 체육관, 화술소조실, 대중정치활동실, 정보기술소조실, 미술소조실, 민족기악소조실, 극장을 비롯한 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들리시는 소조실들마다에서 《아버지원수님! 뵙고싶었습니다.》고 목메여 부르며 저저마다 품에 안겨드는 소조원들에게 나더러 그들이 보고싶어 찾아왔다고 정겹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진을 찍지 못한 학생소년들과 교직원들이 있겠

는데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하시면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궁전의 일군들, 교직원들, 소조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 혁명전적지답사숙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학생 각, 소년단각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과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자봉체육단 스키선수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고속주로에서 용맹스럽게 활강하며 높은 기교동작을 수행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면서 멋있다고, 가슴이 후련하도록 장쾌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동행한 책임일군들에게 이번에 삼지연군을 돌아보니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보다 훌륭히 꾸려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면서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표준모범단위로 꾸릴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방도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는것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혁명적의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 리심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간직하고 혁명의 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삼지연군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군, 표준군, 모범군으로 특색있게 꾸리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의 포병 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2월 1일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의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늘은 새년도 전투정치훈련이 시작된 첫날이라고 하시면서 《훈련도 전투다!》라는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호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새년도 전투정치훈련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전군의 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017년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돐, 조선인민군 창건 85돐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하시면서 필승의 신심드높이 새년도 전투정치훈련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다음해를 전투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이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년도 전투정치훈련에 진입한 날에 울리는 장쾌한 포성은 전군의 장병들을 당의 훈련명령관철에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감시대에 오르시여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의 화력진지배치상태와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수km의 해안가에 준비하게 늘어선 수백문의 대구경자행포들을 바라보시며 불만 하다고, 요란하다고, 마치도 포무기주단을 펼쳐놓은것만 같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불패의 위용을 떨치며 진지를 차지하고있는 저 포무기들에는 인민군대의 포병무력강화를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가 깃들여있다고 하시면서 싸움의 날 명중포성만을 울리는것으로써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군령도업적을 빛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

이 드디어 섬멸의 포문을 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한한 광경이요, 대단하오 대단해, 저속에서 무엇이 남아나겠소,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남조선것들을 저렇게 답대겨야 하오, 첫타격에 남조선것들의 대응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고 그래도 단말마적으로 발악하는 놈들이 있다면 아우성칠 놈, 비명지를 놈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려야 하오, 우리 영웅한 포병들이 겨냥하는 곳마다가 적들의 송장더미로 되게 해야 하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적들의 소굴에 무자비한 포병화력타격을 들이대어 그속에서 더러운 원수들의 그림자도 찾아볼수없이 비자루질하겠다는 리성국 조선인민군 제4군단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호랑하게 웃으시며 결심이 좋다고, 정의의 전쟁의 발발과 함께 서남전선 포병부대들이 리쳐올리는 승전의 포성은

남진하는 인민군부대들에 날개를 달아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포사격경기와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포병으로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고 포병의 측포사격으로 조국통일의 승리를 경축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포병중시관, 포병철학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대전에서 인민군대의 무쇠주먹인 포병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전선과 후방이 따로없이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현대전쟁에서 포병의 활용은 작전과 전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포병무력강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청년 강국으로 빛나는 나라

청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사회발전에서 노는 역할이 그 어느 세대에 비할바없이 큰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결정되기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자식들이 구실을 못하면 집안이 망하고 청년들이 구실을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년문제를 옹계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들에서는 청년들이 우환거리로 되어 사회의 번두리에 밀려나 방황하고있다.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약육강식, 부패타락한 생활풍조로 청년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도덕육체적으로 병들고 반인민적악정과 청년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차별로 하여 실업난에 허덕이며 자기들을 버린 사회를 저주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청년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여 청년중시의 나라, 청년강국이 되었다.

피끓는 청춘의 심장으로 조국보위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경제강국건설장소에서 위훈의 창조자, 최첨단돌파전의 제1번수가 되고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이는 주인공들도 바로 청년들이다. 동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고 혁명선배들의 아들딸, 부모없는 자식들을 말아키우는 《처녀어머니》가 되어 일심단결의 화원에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며 사람들을 감

동시키는 소행과 미담의 주인공도 청년들이다.

무성한 잎새를 펼친 아름다운 거목은 씨앗에서 시작되며 그 씨앗은 자양분을 주고 정성담아 가꾸주는 손길이 있어 거목으로 자라나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것처럼 이 나라 수백만 청년들의 애국적위훈과 미풍에도 그것을 낳게 하는 근본원천이 있다.

그것은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미래로, 역군으로 내세우고 보살피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청년중시의 믿음과 사랑이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청년중시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더욱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청년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들이 민족에 대한 강한 자부심, 사회생활에 주인공으로서 참가하려는 투철한 의식, 고상한 정신과 건전한 도덕품성을 지닌 아름답고 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보살피고계신다.

주제101(2012)년 1월, 수백만 청년들에게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라는 크나큰 믿음과 고무의 친필을 보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시찰길을 이어 가시는 속에서도 8월의 청년절을 뜻깊게 쇄도록 조치도 취

해주시고 청년절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시었다.

지난해 5월에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를 열도록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품모와 미풍은 진주보석에도 비길수 없는 소중한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 나라는 청년강국이라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발휘되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애국심은 우리 나라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이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같은 훌륭한 청년들을 키워냈다고 하시었다.

결출한 령도실력과 뛰어난 안목으로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들로, 선구자로 내세워주시고 빛내주시는 그이

의 세련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청년강국의 기개를 떨치고 있는것이다.

대자연의 엄혹한 혹한과 싸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언제를 높이 쌓은 백두청춘들의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기백은 조선청년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애국충정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0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저기 바라보이는 저 높이 쌓인 언제는 우리 청년전위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심의 루적이며 1호발전소 언제의 높이는 영

웅청년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 청년강국의 존엄의 높이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 안겨주시는 하늘같은 믿음과 대해같은 사랑을 안고 오늘 조선청년들은 사회주의조국의 영예로운 수호자, 강국건설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하고있다.

조선청년들의 무궁무진한 힘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마련하는 추동력이며 통일강국을 앞당기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청년들이야말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높이 떠받들

어주고싶은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청년들이며 이런 미더운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큰 복이고 조선의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강대성과 창창한 미래가 있다고, 우리 당중앙이 가리키는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나아가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과 청년들앞에는 광활한 미래가 펼쳐져있으며 조선청년운동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고 하시었다. 령도자와 뜻과 발걸음을 따라 열혈의 청춘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충정에 바치는 용감한 맹장들, 씩씩하고 미더운 천군만마와도 같은 청년들이 있어 공화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한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현지도에 비친 위인의 거룩한 세계

체육을 매우 중시하는 본

얼마전 공화국의 여자축구팀 선수들은 국제축구연맹 17살미만 여자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우승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제8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17살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참가력 사상 최고기록을 세운 여자태권도 선수들, 지난 8월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의 우승에 이어 여자축구선수들이 이룩한 경기성과는 체육강국으로 도약하는 공화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체육강국을 건설하는것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나서는 중대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는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주시어 체육인들이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주시도록 하여주시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그이께서는 체육강국건설을 다그쳐 국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키우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며 체육발전의 전면적개화기를 열어주시었다.

나라의 영예를 세상만방에 떨친 체육선수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들에게 베푸신 그이의 사랑과 은정은 끝이 없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에

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시아의 패권, 세계패권을 다투는 국제경기들마다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떨쳐가라고 힘과 고무를 안겨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선수들이 경기들에서 통쾌하게 승리하고 영예의 단상에 올라 애국가의 주악을 울릴수 있는것은 시상대의 높이이자 조국의 높이라는 자각을 안고 평시에 땀을 아낌없이 흘리며 이악하게 훈련한 응당한 결실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었다.

시상대의 높이이자 조국의 높이! 그 어느 나라 령도자가 체육인들이 올라서는 시상대의 높이를 조국의 높이라고 한적이 있는가. 무릇 체육인들이 오르는 우승의 시상대를 두고 영예의 단상이라 일러왔고 시상대에 오르면 영예와 치부의 정상에 오른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공화국의 체육인들이 오르는 시상대를 조국의 이름을 떨치는 값높은 명예의 높이로 보시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체육인들이 조국을 세상만방에 우뚝 빛내이기를 바라시는 믿음과 기대가 어려있는것이다.

주제101(2012)년 10월 어느날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금메달수상자들을 만나시였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평화시기에 다른 나라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리는 사람들은 체육인들밖에 없다 하시면서 국제경기들에 나가 우승을 하여 공화국기를 날리는 체육인들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자들이고 영웅들이며 몇평

이들이라고 하시었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나 체육인들이 있고 그들속에서는 금메달로 나라의 명성을 떨친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우승을 하였다 하여 그들이 다 나라의 영웅으로, 애국자들로 떠받들리우는것은 아니다.

력사를 소급해보면 마라톤경기에서 1등을 하였지만 나라가 없는 식민지청년인것으로 하여 금메달우에 눈물을 뿌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비극도 있고 권투왕으로 널리 알려진 선수가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의 참혹한 현실에 항거하여 금메달을 강에 내던지고 너비뛰기의 세계장자가 자기를 축하하는 사람들앞에서 기쁨이 아니라 인종차별에 항거하여 터친 울분이 생생히 기록되어있다.

체육인들의 금메달도, 명성도 결국은 위대한 령도자의 슬하에서만 값높이 빛나는 법이다. 비옥한 토양에서 풍성한 열매가 열리듯이 오늘날 공화국이 련이어 이루고있는 체육신화는 체육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튼튼한 토대와 전사회적인 체육중시열풍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을 발전시키자면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앞으로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축구선수들의 대항경기, 활쏘기선수들의 경기, 배구경기를 비롯하여 여러 경기들을 보시면서 원수님께서 세계의 창공에 람홍색 공화국기를 휘날리겠다는 불타는 열정을 안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고 전국도대항체육경기 대중체육부문 결승경기를 보아주실 때에는 앞으로 도대항체육경기를 정례화하라고 하시었다.

온 나라가 체육을 하고 체육열기로 끓게 하여 공화국을 체육으로 흥하는 나라, 체육으로 들썩이는 나라로 되게 하시려는것이 그이의 뜻이다.

체육의 대중화는 공화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이채로운것이다.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에는 친히 서한까지 보내시어 체육강국건설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의 령도밑에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이 번듯하게 일떠서고 양강도축구경기장, 평양체육관, 5월1일경기장과 김일성경기장이 새로 개건되었으며 곳곳에 로라스케이트장, 배구장, 통구장, 바드민턴장 등 훌륭한 체육시설들이 그쯘히 꾸려져있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세계로 뛰는 북스포츠》, 《북은 머지않아 체육강국으로 빛날것이다》고 찬탄하면서 《북의 성과는 체육발전의 새로운 전성기가 환희롭게 열리고있음을 선언하는 장쾌한 승전포성으로서 그것은 전적으로 김정은령도자의 령도력의 결과》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응대한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따라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며 불어치는 체육열풍속에서 공화국은 체육강국의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 있으며 우리 세계를 놀래우는 체육신화들을 끝없이 창조해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우리의 취재가 뜻밖에 학생들의 교수참관객이 된 일도 있다.

지난 11월 26일이였다. 평양의 강반석고급중학교 문학반 학생들이 야외수업을 하였다.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평소와는 달리 현지체험을 하고 습작을 하는 날이였다. 남녀학생들이 거리들을 지나 대동강의 쉼, 두루섬을 넘긴 다음 교실로 돌아와 겨뽀내기로 작품발표를 하게 되어있었다. 그날은 눈이 내리고 대기가 캄캄한 학생들의 얼굴은 밝고 명랑하였다. 선생님의 인솔하에 여러곳을 찾는 학생들의 머리에는 《첫눈을 맞으며》, 《대동강풍경》, 《첫눈과 나누는 이야기》 등 서정성이 짙은 제목이며 글귀들이 저절로 떠올랐다.

그날 취재실에서 학생들을 만나게 된 우리는 그들과 한데 어울려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던 여가시간에 그들의 포부와 희망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3학년의 한 학생은 앞으로 김일성종합대학 문과대학을 지망한다고 하였고 1학년생인 한 학생은 평양연극영화대학을, 같은 또래의 한 녀학생은 김형직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문학선생이 되겠다고 하였다. 14~16살 난 학생들의 높은 열의와 리상이 노래, 희망의 나래가 있었다.

오래전부터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과 깊은 관심속에 어려서부터 글짓기에

나다른 개성이 있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교육이 중등교육단계부터 진행되고있다.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보살핌속에 중학시절에 문학적기초를 배운 학생들에게는 지망에 따라 해당 대학에 입학하여 전공과목을 공부하는 배움의 길, 희망의 길이 환히 열려져있다. 나 어린 학생들이 대견스러웠다. 래일의 청년대 학생들을 보는듯싶었다. 위대한 청년중시, 후대중

시와 제도하에서 재능의 싹을 마음껏 틔우며 민족의 아들딸로, 나라의 역군으로 성장하는 인재후비들이였다.

이런 현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있다고 하여도, 교육이라는 문화가 있는 사회에서나 다 보게 되는것이 아니다. 바로 그날 남쪽땅에서 희망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3학년의 한 학생은 앞으로 김일성종합대학 문과대학을 지망한다고 하였고 1학년생인 한 학생은 평양연극영화대학을, 같은 또래의 한 녀학생은 김형직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문학선생이 되겠다고 하였다. 14~16살 난 학생들의 높은 열의와 리상이 노래, 희망의 나래가 있었다.

오래전부터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과 깊은 관심속에 어려서부터 글짓기에

않는 법이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는 숭고한 후대사랑, 위대한 청년중시의 정치에 의해 공화국의 청소년들은 희망의 나래 마음껏 펴고 미래의 역군, 강국건설의 주인공들로 미덥게 성장하고있다. 《멀지 않아 몸도 마음도 키우이 자란 저희들과 다시 만날 날이 있을겁니다.》 그날 우리와 헤어지며 각듯이 고개속이던 우진 학생의 인사말은 인상적이었다. 할아버지(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병훈)의 뒤를 이어 손자가 앞날의 훌륭한 작가가 되리라는것을 우리는 믿어의심치 않았다. 눈발속에 멀어지는 학생들을 점도록 바라보며 우리는 새세대들의 밝은 모습이자 나라와 민족의 전도라는것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본사기자 리 설

《바다 만풍가》 높이 올린다

지금 동서해의 포구들마다에서는 물고기대풍으로 《바다 만풍가》 노래소리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포구에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 웃음도
절로 나네
능실능실 만경창과 춤추는줄
알았더니
물고기떼지어 출렁이는 보배
론 바다로다
마중가며 잡주요 어그여차
따라가며 잡주어 어그여차
어구어 디야
우리 정성 우리 기쁨 풍어기
로 나뉘리라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
더해가세
...

노래의 구절 그대로 선창마다에 물고기폭포가 쏟아지고 포구의 하류장에도 물고기들이 큰산을 이루고있다. 긴 팔을 뻗치고 분주히 돌아가는 기증기들의 고르로운 동음, 물고기를 실어나르는 자동차들의 경적소리, 가공장에도 물고기바다, 냉동저장실과 절입창고들에도 물고기사태, 집집의 식탁마다에서도 사회주의바다향기 흐르고있는것이다.

동서해의 포구에 넘쳐나는 물고기바다, 이 땅에 차넘치는 바다향기에서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자기 힘을 믿고 펼쳐나서면 능히 할수 있다는 자신심과 배짱, 제손으로 이 땅에 문명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공들은 하루에 최고 1만의 물

고기를 잡고있다. 이들은 11월 19일 현재 지난해 집중어로전 투기간에 잡은 수량보다 두배나 되는 9만여의 물고기를 잡은데 그치지 않고 10만목표를 향해 드세게 내닫고있으며 김책수산사업소,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등 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도 물고기잡이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어로공들의 가슴마다에 자기 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안겨주어 이 땅에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하여주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이다.

그이께서는 수산사업을 발전시키자면 현대적인 고기배가

많아야 한다고 하시며 최신설비를 갖춘 고기배들을 보내주시고 물고기잡이에서도 인민군대가 맨 앞장에 서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시였다.

주체102(2013)년 5월 어느날 찬비를 맞으며 인민군대의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만든 고기배에 오르시였다. 조라실과 기관실, 앞선실과 중간선실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배의 성능과 어로공들의 생활에 불편한점이 없는가를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척당 물고기잡이계획에 대해 물으시고 매 고기배당 해마다 1 000t은 잡아야 한

다고 어로공들에게 목표도 정해주시고 고무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시고 풍요한 가을처럼 바다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라는 의미에서 새 고기배들의 명칭을 온갖 열매 주렁지는 가을의 상징인 《단풍》호로 달아주시였다.

그이의 믿음과 기대에 고무되어 이 수산사업소가 30여년만에 호뭇한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였다는 소식을 아시고는 너무 기쁘시여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찾으시어 물고기들로 가득찬 물고기절입창고와 물고기냉동저장실을 돌아보시며 변이 나는 해에 보기 드문 물고기풍년, 물

고기사태를 안아왔다고, 이것은 앞으로 더 큰 변혁을 예고해주는 희한한 풍경이라고 어로공들의 성과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온 나라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원, 양로원들에 보내줄 물고기수량까지 수첩에 계산해보시며 이를 전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준공을 앞둔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어서는 우리 당이 인민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겠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자라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아래 이 땅에 시작된 황금해의 새 력사의 갈피속에 《이제 어경》이라는 새 시대에도 태어났다.

지난해 11월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하류장과 물고기가공, 냉동저장고마다에 넘쳐나는 물고기 황금해력사창조의 기치를 들 때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어로전사들을 굳게 믿고 오늘을 락관하였다고 하시면서 당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한몸그대로 추

진기가 되고 그물이 되어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고있는 어로전사들이 있기에 《이제 어경》이라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새로운 선경이 펼쳐질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얼마전 만선의 배고동소리 높이 올리는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최근 며칠사이에 수천의 도루메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온 나라 인민들에게 희한한 물고기대풍소식을 한시바삐 전하고 싶어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구내에 차넘치는 물고기비내내, 사회주의바다향기를 맡으니 만시름이 풀린다고, 정말 희한한 풍경, 기막힌 풍경이라고, 오늘의 이 기적같은 물고기잡이성과를 통하여 당정책은 곧 과학이고 승리는것을 확증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물고기는 가까운 바다에서도 잡고 먼바다에서도 잡고 나가면서도 잡고 들어오면서도 잡아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주자고 간곡히 호소하시였다.

참으로 병사사랑, 인민사랑의 열과 정으로 온넛을 불태우시며 열사복무의 날과 달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헌신의 고귀한 결정체인 사회주의바다향기는 《바다 만풍가》의 흥겨운 노래소리와 더불어 최전연초소로부터 두메산골가정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조국강산에 더 질게, 더 가득히 차고넘칠것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그날은 류경치과병원에 갔던 날이다. 병원을 돌아보는 동안 우리는 2층 내과치료실앞에서 칠순이 되는 한 할머니와 통성하게 되었다. 대동강구역 청류2동에 사는 딸집에 나들이온것이 병원에 들렀다는 한현욱이라는 로인이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 할머니는 그전에 문수거리에서 딸내외와 살다가 광복거리가 서면서 팔골3동의 아들집으로 갔다면서 이제 다시 딸집으로 옮겨서 생각이 굴뚝같아진다고 하였다.

딸집에서 아들집으로, 다시 아들집에서 딸집으로 왔다갔다하는 로인의 나들이에 공감하여 우리는 노란 은행잎이며 갖가지 가을 단풍에 물드는 아름다운 문수거리를 머리속에 떠올리었다.

예로부터 문수지구는 대동강을 끼고있는데다 강 건너에는 산세수려한 모란봉을 마주하고있어 경치가 이룰데 없는 곳이다. 해방후부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남산재를 아껴오느것처럼 문수지구도 아끼시였다. 남산재건설은 인민적인 건물을 앉히기 위하여 미루어오신것처럼 문수일대의 건설도 인민을 위한 주력거리형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루어오시였다. 그러다 남산재에는 인민대학습당을 세우도록 하시였고 문수지구에는 웅장 화려한 현대적살림집거리를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문수지구의 지질조사사를 잘하고 지하동공이 많은 석회암지대의 조건을 고려하여 살림집들의 층수도 바로정하고 먼후날에 가서도 후손들이 뜯어고치지 않도록 현대적으로, 질적으로 건설하도록 그 형성안을 일일이 지도하신 아버지수령님이시였다.

어머ису령님의 구상과 발기에 의하여 시작된 문수거리건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지도밑에 지난 세기 80년대초에 웅근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주력지구로 짧은 기간에 완공되게 되었다. 살림집구획에는 학교, 유치원, 탁아소, 상점, 공원 등 생활환경과 조건에 맞는 교육, 문화, 상업편의봉사시설물들이 준비하게 꾸러지였다. 후에는 또 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 등 공공

건물들이 련이어 들어앉았다. 딸그대로 천지개벽이였다. ...

주민지구의 생활환경과 조건을 비롯하여 모든 생활공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있는 문수거리가 지금은 하나의 병원촌으로 면모를 일신하였다.

김만유병원, 고려의학과학원이 있는 이 일대에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우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이 틀지게 자리잡고있는것이다.

몇해전 어느날 류경치과병원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수지구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병원촌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지난 10월 류경안과종합병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병원들이 집중되어있는 문수지구에 류경안과종합병원까지 일떠섬으로써 이곳이 병원촌으로서의 면모를 더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하시였다.

경치가 좋고 생태환경이 깨끗한 대동강변의 주력지구로서 청년거리와 이어지고 대학거리 등 여러 거리와 교차되는 교통상, 생활상 모든 점이 유리하고 편리한 문수일대에 사람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보건시설들을 건설하도록 할것을 받기하시고 우류아동병원 등 모든 건설장들을 일일이 현지지도하시며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건시설들을 미학성과 편리성, 실용성이 철저히 보장된 의료봉사기지로 건설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구상과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에 의하여 문수지구가 오늘과 같이 병원촌으로 훌륭히 변모되게 되었다.

인민의 요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끊임없이 발양시키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문수지구가 하나의 보건시설망으로 전변된것이다.

우리는 한 로인의 나들이에서 문수지구의 달라진 모습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류현철

인민들에게 차례질 질 좋은 상품을 더 많이

얼마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제27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는 년년이 새라새롭게 변모되는 인민소비품에 대한 공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전국의 인민소비품 생산자들이 생산한 명제품, 명상품들이 기본을 이룬 이번 전시회를 보다 깊이 취재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시회를 우회한 경공업성, 식료일용공업성의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해마다 진행된 전시회이지만 이번 전시회의 제품들은 불수록 품위있는 제품들이었다고 생각된다.

허철산(경공업성 부상): 우리는 이번 제27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에 지난 시기 크고작은 인민소비품들을 일률적으로 전시하던것과는 달리 해당 지역, 단위들의 얼굴이 잘 나타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실지 이바지할수 있는 소비품들을 전시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번에 몇따기, 허레허식과 같은 낯은 틀을 없애고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세계와 당당히 겨룰수 있는 소비품의 품종수를 늘이도록 하는데 전시회의 목적

을 두었다.

전시회에 출품된 많은 인민소비품들은 그 질이 이전과는 대비도 할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높아진 자기 단위를, 자기 고장을 대표하는 명제품, 명상품들로서 자력자강하는 우리의 경공업과 식료일용공업의 면모를 더욱더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기자: 전시회에 출품된 제품들 가운데서 주목되는 것은 무엇인가.

김정학(식료일용공업성 국장):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이 종전과 비할바없이 훨씬 높아진것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금, 은, 동메달과 증서를 받은 많은 제품들이 우리 원료, 우리 자재에 의거한것들이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사리원염예군인재봉사공장, 만경대혁명사적기념품공장을 일률적으로 전시하던것과는 달리 해당 지역, 단위들의 얼굴이 잘 나타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실지 이바지할수 있는 소비품들을 전시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번에 몇따기, 허레허식과 같은 낯은 틀을 없애고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세계와 당당히 겨룰수 있는 소비품의 품종수를 늘이도록 하는데 전시회의 목적을 두었다. 전시회에 출품된 많은 인민소비품들은 그 질이 이전과는 대비도 할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높아진 자기 단위를, 자기 고장을 대표하는 명제품, 명상품들로서 자력자강하는 우리의 경공업과 식료일용공업의 면모를 더욱더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기자: 전시회에 출품된 제품들 가운데서 주목되는 것은 무엇인가. 김정학(식료일용공업성 국장):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이 종전과 비할바없이 훨씬 높아진것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금, 은, 동메달과 증서를 받은 많은 제품들이 우리 원료, 우리 자재에 의거한것들이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사리원염예군인재봉사공장, 만경대혁명사적기념품공장을 일률적으로 전시하던것과는 달리 해당 지역, 단위들의 얼굴이 잘 나타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실지 이바지할수 있는 소비품들을 전시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번에 몇따기, 허레허식과 같은 낯은 틀을 없애고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세계와 당당히 겨룰수 있는 소비품의 품종수를 늘이도록 하는데 전시회의 목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보아주시고 주체당이라고 말씀하신 평양곡산공장의 옥당, 대동강식료품공장에서 생산되는 평양메주과 추장,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의 배단물 등 많은 소비품들이 100% 우리 원료에 의거한 제품들이다.

기자: 이번 전시회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김병오(경공업성 국장): 이번 전시회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소비품생산단위들에서 생산한 질 좋은 제품들이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계기로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품질평가와 함께 상품판매실적을 평가지표에 포함시켰다. 전시회기간 상품판매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생산되는 제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전시회의 참가성원들을 해당 생산단위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기본으로 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사이 제품을 통한 기술적연계를 강화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전시회를 통하여 생산단위들사이 경험들을 교환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제품생산에서 또다시 비약을 일으킬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자: 이번 전시회를 보며 가까운 앞날에 국산화된 명상품들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허철산(경공업성 부상): 전시회에 출품된 많은 인민소비품들은 내용은 물론 형태와 색깔 등 여러가지 지표들도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 인민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게 창안제작되면서도 세계적인 규격과 제품안전성을 보장하고있다.

지금 전국의 인민소비품 생산단위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높이 드세찬 생산돌격전을 벌이며 명제품, 명상품의 품종을 확대해나가고있다.

우리는 앞으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



빛은 어둠을 이긴다

빛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자연계에 빛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듯이 인간에게 빛이 없었다면 오늘의 현실은 물론 인류의 존재자체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예로부터 빛을 사랑해왔고 밝은것, 정의, 희망 등을 빛에 비유해왔다.

지금 남조선에서 련일 거세차게 타변지고있는 수백만의 초불, 이것은 빛이다.

초불은 저절로 나오지 않았다. 그 빛은 어둠의 세력을 징벌하기 위한 분노의 빛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11월 12일과 19일에 진행된 100만, 백수십만의 초불시위에 이어 26일 또다시 근 200만의 초불시위를 벌리며 청와대근처에까지 몰려가 어둠의 세력을 공포와 전멸에 떨게 하였다.

온갖 사기와 협박의 방법으로 권력을 나누어췌 후 수년간 박근혜는 미국과 한강 무당에 불과한 최순실의 조종을 받으며 사회에 짙은 어둠만을 몰아오는 온갖 못된짓만을 팔라하고 죄악의 검은 자취만을 새겨왔다.

따지고보면 그의 집권기간은 그대로 굴종과 독재의 어둠, 부정부패와 인권말살의 어둠, 동족대결과 전쟁위협을 철학같은 암흑시기였다.

미국대사 하나가 부상당했다고 하여 박근혜를 위시한

보수떨거지들이 총 뿔쳐나서 온갖 아양을 떨며 《석고대 최단식》 늪음까지 벌린 회세의 친미굴종추대는 민족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고 남조선에 얼마나 굴종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있는가 하는것을 모두의 가슴에 뼈저리게 새겨주었다.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백년속적 일본과의 매국적인 《위안부합의》라는것을 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벼락같이 체결해 온 겨레의 규탄을 받는것도, 주변대국들을 겨누는 미국의 《싸드》 배치늪음으로 남조선땅을 언제, 어느 순간에 핵전쟁의 위험시대, 무서운 암흑시대로 만들어버린것도 매국역적 박근혜이다.

외세에 대한 굴종을 체질화한 박근혜는 무서운 독재자로 군림해왔다.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하여 잡아가두고 진보언론들을 폐간시켰으며 진보정당을 《중복》으로 몰아 강제해산하고 독재권력에 대한 순종만을 강요하였다.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여 시위를 벌린다고 하여 몰대포로 백남기농민을 살해한것도 다름아닌 박근혜의 악정이다.

이뿐이 아니다. 99%의 서민들의 피땀을 짜내여 자기와 최순실, 대기업들의 검은 배만 불리워주고 인민들을 개, 돼지로 치부하면서 초보적인 인권과 생존권마저도 강그리 짓밟아버렸으며 자기의 변태적이고 령기적인 취향을 위해 《세월》호의 애어린 꽃망울들을 차디찬 물속에 수장해버리면서까지 마취제를 복용한 회세의 악녀도 박근혜이다.

아무리 피타게 노력해도 살수 없는 인간생지옥, 그 어둠의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으며 살길찾아 방황하고있다.

박근혜는 극도의 동족대결압살책동으로 북남관계를 한치앞도 내다볼수 없게 만들었으며 미국의 수많은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어 조선반도에서 어느 순간에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최악의 위기, 동족대결의 암흑을 몰아왔다.

지어 박근혜는 모두에게서 실날같은 희망마저 모조리 앗아가버림으로써 남조선은 빛이 없는 암흑의 세상, 매일이 없는 차디찬 어둠의 세상으로 더욱 전락시켰다.

박근혜야말로 남조선인민들과 겨레에게서 만약의 근원이

며 불의와 어둠의 상징이 아닐 수 없다. 수백만 초불이 련일타오르는 남녘의 항쟁의 거리들에서 《박근혜타도!》, 《박근혜 즉각 퇴진!》의 거세찬 함성이 울려나오고 박근혜를 조롱하는 갖은 풍자물들이 등장하고있는것은 그가 얼마나 민심의 저주와 분노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사회의 어둠을 불사르고 자유와 민주, 새 삶의 빛을 안아오는 길은 청와대마녀의 목을 비트는것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인민들과 야당, 각 단체들은 기만적인 《대국민담화》를 걸어치고 아무 소리없이 스스로 즉각 퇴진하라고 분노의 함성을 터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도처에서 세차게 타변지는 초불의 대하는 단지 만고죄악을 저지른 박근혜 하나만을 끌어내리기 위한것이 아니다.

박근혜와 함께 특대형추문사건의 공범이며 부패와 범죄의 집단인 《새누리당》은 물론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온 재벌들과 독재권력의 나팔수역을 해온 보수언론들을 비롯하여 어둠의 세력을 통채로 매장하고 그 무덤위에 정의와 진리가 살아숨쉬는 인간다운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빛이다. 초불투쟁에 나선 인민들이 한결같이 《새누리당》해체를 부르짖고 대기업을 징벌하여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끊어버리라고 분노의 함성을 터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빛의 세력과 숨막히는 어둠을 안간힘을 다해 지속시켜보려는 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이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다.

빛이나, 어둠이나. 전자가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참다운 삶과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후자는 1%의 특권층만을 위하고 민중이 개, 돼지가 되어 계속 짓밟히고 미래도 없는 암울한 길이다. 남조선의 수천만 민중은 나이와 계층, 지역과 정치리념을 초월하여 거의모두가 빛을 택하였다.

그것이 날이 갈수록 들불이 되고있는 초불의 대화가 잘 말해주고있다.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이기는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초불은 미래를 체현하고 어둠은 낡은 과거를 체현하고있다. 력사가 온갖 궂음을 겪어오던 중당에는 앞으로 전진하듯이 미래를 비치는 빛은 민심의 대안이고 희망이며 힘이다. 반

면에 낡고 힘이 빠진 과거의 세력, 어둠의 세력의 종국적파멸은 불가피하다.

지나온 남조선의 항쟁력사를 돌이켜보아도 어둠이 빛을 이긴 실례는 없으며 이기는것은 언제나 빛이었다.

자유와 민주를 갈망하는 남조선인민들은 1960년 4.19봉기로 이승만독재의 아성을 무너뜨렸으며 1987년 6월인민항쟁의 불길로 전두환군사독재 《정권》에 파멸을 선고하였다.

2002년 미군장갑차가 백주에 길가던 두 녀학생을 무한개도로 깔아뭉개었을 때에도 분노의 반미초불은 들불로 타올라 미국대사관을 포위하고 식민지 통치체제를 밀뿌리채 뒤흔들어 놓았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박근혜가 제아무리 뻔뻔하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쓰지만 민심은 이미 사형선고를 내렸으며 빛은 청와대의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에게 속았다는것을 깨닫고 항쟁의 초불을 들었다.

이들은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민주주의 새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남조선에서 각성되고 단합된 인민들의 결연한 항쟁, 투쟁의 불길에 의해 어둠의 세력은 종국적파멸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김영진

18에 비낀

애비와 딸의 운명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련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였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얼마전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에서 벨아낸 녀두리이다.

정계에 나선지 18년! 신통히도 《유신》 독재자인 제 애비의 18년 장기 집권기간과 일치한다.

한갓 우연인가. 애비와 똑같은 권력야욕이 만들어낸 필연적 일치라 해야 할것이다. 군사강패인 박정희는 불법무도한 쿠데타로 권력을 강탈하고 《민정이양》의 기만적인

간판마저 떼버리고 18년 동안이나 군사독재통치를 했다. 그의 독재유전자를 물려받은 박근혜역시 사 이비목사인 최태민의 조종을 받아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의 감투를 쓰고 나중에는 불법 《선거》로 《대통령》 병거지도 강탈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 18년간이 《국민》과 함께 한 련정이 아니라 민심을 짓밟고 민생을 망쳐온 부패와 범죄의 18년임은 이미 드러날대로 드러난 상태이다. 죄에는 벌이 따른다고 하였다.

《유신》 독재자가 18년 장기집권의 결과로 심부

이 쓴 총알에 맞아 비참하게 종말을 고한 사실은 력사에 기록되어있다.

지금 그 딸인 박근혜도 정계에 나선지 꼭 18년만에 민심의 완전한 버림을 받고 《대통령》직에서 쫓겨나 감옥에 가는것은 물론 정치무대에서도 완전히 사라져야 할 가장 비참한 운명에 처해있다.

박근혜가 18년만에 애비가 간 비참한 죽음의 나라에 빠져든것은 달리 필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의 귀결이라 해야 할것이다. 민심을 우롱하고 짓밟는 대역죄를 지었으니 하늘의 벌을 받은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지난 주말에 남조선전역에서는 또다시 거대한 초불바다가 펼쳐졌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남조선전역의 57개 도시들에서 ...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를 체포하라》, 《주변인 박근혜를 당장 구속하라》, 《국민앞에 항복하라》, 《더이상 못참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인사들과 로동자, 농민, 청소년학생, 중소기업가, 교수, 청소년들, 지어 장애인을 비롯한 근 200만의 각계층이 손에 초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였다.

대규모적인 초불시위투쟁과 때를 같이하여 하늘에서는 하얀 첫눈이 송이송이 내렸다. 초불이 밝히는 거리거리들에, 사람들의 몸에 내렸다 녹군 하던 그날의 눈송이들.

흔히 첫눈은 사람들에게 류다른 감흥을 준다. 밝아올 새해를 그려보며 자기의 소망을 눈에 담아보곤 하는것이 인간들의 심성이다. 그 첫눈이 남조선의 거리거리에 내리었다. 수백만이 초불을 들고 박근혜퇴진운동에 나선 그

날에.

남조선의 남녘로소는 그 눈을 보며 무엇을 간절히 소원했는가. 그것은 박근혜의 즉각퇴진이였다. 모두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박근혜에게, 모두의 희망을 빼앗은 박근혜에게, 박근혜가 온갖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주는 만가지 악의 근원이기에, 박근혜 없는 그날이 자유와 민주와 생존을 위한 새 출발이기에.

수백만 로동자들은 대기업의 리윤과 자기의 검은 배를 불리기 위해 생존권을 말살해온 박근혜를 저주하며 흰눈에 소원을 담았고 뜨락뜨락을 몰고 서울에까지 올라온 각지의 농민들은 쌀값폭락을 초래하고 《싸드》배치로 생존의 터전마저 짓밟아뭉개는 역도를 단죄하며 탄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였다. 대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배움의 터전을 특권층의 통략물로 만든 부패한 권력집단의 타도를 흰눈에 담아 웨쳤고 녀

성들과 아이들은 남조선 눈서늘고 하늘이 내리보내 준 첫눈이였다. 박근혜 없는 흰눈같이 깨끗한 세상을 만들라며 하늘에서 떨어지던 소원의 흰눈이였다. 그래서 남녘인민들은 그 눈을 《하야눈》이라고 저마다 불렀다.

《하야눈》! 행성이 생겨 눈은 헤아릴수 없이 내리고 또 내렸지만 만인의 원성을 담은 이런 눈이 또 있었던가. 민심은 천심이라 했거늘 민심의 한결같은 저주와 배격을 받고있는 박근혜의 앞날은 너무도 자명하다.

김국철

《하야눈》



박근혜의 퇴진 요구

11월 29일 박근혜는 남조선민심의 퇴진 압박에 눌려 제3차 《대국민담화》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담화는 모두에게 박근혜에 대한 더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 주고 민심에 불복종하는 역도의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켰다. 그는 담화에서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공언하였다. 한마디로 자기가 한 일은 다 국민을 위한다고 옳은 것이며 퇴진하라니까 《국회》가 결정해서 알려달라는 것이다. 참으로 뻔뻔스럽고 철면피하기 그지없는 녀두리라 해야 할 것이다.

진짜 《대통령》과 꼭두각시 《대통령》의 대화

남조선에서 《문고리3인방》으로 불리우는 전 청와대비서관 정호성의 녹음파일에 들어있는 대화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래에 그 대화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정호성: 《최선생님(최순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진척상황과 왜 빨리 안하는지 알고싶어한다. 빨리 처리하라고 하신다.》 박근혜: 《이번주내로 처리될 것 같다. 최선생님께 잘 말씀드려라.》 최순실: 《그저 어떻게 됐어. 왜 이때까지 안해. 빨리 독촉해 모레까지 하라고 해.》 정호성: 《하명대로 하겠습니까. 래일 〈대통령〉께 다시 독촉하겠습니다.》

결정에 맡기겠다.》며 판데로 공을 떠넘긴 것은 누가 보아도 그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것이다. 당장 발등의 불인 탄핵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아가서 자기의 퇴진과 관련한 방안과 절차, 시기 등을 놓고 여야가 기약없는 싸움을 벌리게 함으로써 시간을 벌어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교활한 술책인 것이다. 《새누리당》이 특대형정추문사건의 공범이고 박근혜와 함께 온갖 범죄를 같이 저지른 범죄당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하기에 지금 남녘각계는 《새누리당》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반역당, 분노의 초불이 거세차게 타오르는 지금이 시각에조차 꼭두각시 《대통령》 사수에만 혈안이 되어 날뛰는 《친박》세력들과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한다고 해서 백날이 가도 타협이 되겠는가. 이 점을 알고 박근혜와 그 졸개들이 공을 《국회》에 떠넘겼으니 얼마나 교활하고 철면피한자들인가. 그가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느니,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이니 뭐니 하며 친인공노할 자기의 죄행을 전면부인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이 보여주듯이 박근혜가 《대통령》자리에 앉아 한 일이란 온갖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으며 자기 자신과 최순실만을 위한 악정을 실시해온 것뿐이다. 최순실과 같은 선무당에게 권력을 통채로 넘기고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박근혜 때문에 오늘날 같은 극도의 정치적 혼란과 민주주의의 파괴, 경제위기의 심화와 민생파탄이 극도에 달하고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대화내용을 읽어본 가입자들은 《누가 진짜 〈대통령〉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게 진짜라면 충격적이다.》, 《박근혜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미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검사들조차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할 수 있다.》, 《실망과 분노에 감정조절이 안될 정도》라고 개탄하면서 《정호성 녹음파일을 10분만 들려주면 초불이 해불이 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박근혜가 이처럼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마구 통략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도 3차 《대국민담화》라는데서 자기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주변관리를 잘못한 것뿐이라고 또 《항변》하였으니 낮가죽이 이만저만 두껍지 않다 해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지껄여댔으니 실로 낮가죽이 꿈의 발동보다 두꺼운 박근혜이다. 총체적으로 박근혜의 《담화》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고 기만이며 정면도전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야말로 《대통령》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한조각의 량심도, 도덕도, 신뢰도 갖추지 못한 추물이라는 것이 다시금 드러나게 되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번 《대국민담화》를 두고 《4분 30초 대국민담화, 시간끌기, (비박계) 교란을 위한 또 하나의 꼼수》, 《극심한 정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리간제〉》, 《〈대국민담화〉가 아니라 〈새누리당〉을 향한 탄핵교란작전지시》, 《탄핵을 회피하고 정치적, 법적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비겁한 꼼수》, 《시종일관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무책임한 담화》 등으로 맹비난하면서 박근혜퇴진투쟁을 더 세차게 벌려나갈 불같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역시 독재자는 민의를 짓밟고 강탈한 권력의 자리에서 스스로 몰려나지 않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금 똑똑히 새겨주는 박근혜 《담화》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지금 남조선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의 지지율은 역대 최악인 4%에 불과하다. 96%에 달하는 거의 100%의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서 지지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소리이다. 새것에 민감하고 정의와 진리에 대한 지향이 누구보다 강한 20대와 3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아예 0%를 기록하고 부정평가는 각각 99%와 98%에 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는 《전통적인 보수지지층》이라 부르는 대구, 경북지역과 50, 60대 이상의 세대들 속에서도 버림을 받고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과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되고 밖에서는 지금 남조선에서 박근혜 탄핵,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시위는 날이 갈수록 격렬하다. 최악의 덩어리 박근혜를 단죄하는 울분의 분출이며 악녀를 반드시 파멸에 처하게 하려는 민심의 향기이다.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누빈 초불시위에는 소녀상가장물이 등장하여 눈길을 모았다. 친일에 찌들대로 찌든 박근혜에 대한 무언의 단죄였다. 지난해 12월 박근혜는 일본으로부터 몇푼의 돈을 챙기고 있었으니 낮가죽이 이만저만 두껍지 않다 해야 할 것이다. 남

일마진 《대국민담화》라는데서 박근혜는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았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에서 어떠한 개인적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항변 비슷하게 증언부언하였다. 세상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보다 더한 거짓말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제가 한 말과는 정반대로 박근혜는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적이 없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이후 《대통령》으로 행세하는 오늘까지 그의 뇌리에 독사처럼 파리를 틀고앉아온 것은 국민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저하나만을 위한 권력야욕이었다. 그는 엄청난 선거부정으로 따낸 《대통령》권력도 제 주머니의 물건처럼 선무당에게 내맡겼고 그가 지시하는대로 할 짓, 못할짓을 다하였다. 대기업우두머리들을 직접 불러 저와 최순실을 위한 미르재단과 K스프코재단에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기부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은 사익추구가 아니고 공익추구로 되는가. 다른것은 더 논의하지 않고 지금 남조선 각계의 거센 반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은 추운 겨울날에도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초불의 대화가련일 밤하늘을 밝히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근 200만의 초불이 떠올랐다. 이것은 박근혜가 민심의 완전

4% 《대통령》의 버리기 놀음

한 버림을 받았고 한갓 《식물대통령》에 지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박근혜의 현재 처지는 남조선의 역대 《대통령》들중 최악의 상태인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그례를 찾아볼수 없는 《기니스기록》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나 다름없는 지지율과 수백만 초불민심의 퇴진압력을 매일 받고있는 박근혜는 요지부동이다. 얼마전 3차 《대국민담화》라는데

소녀상은 말한다

박근혜가 저지른 죄는 피해자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우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악행중의 악행이다. 그뿐이 아니다. 온 남녘이 박근혜의 퇴진으로 죽가마뽀듯 하는 속에 《식물대통령》은 민심이 반대하는 일본파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것을 체결하였다. 그런가하면 애비의 친일행적을 가리우고 독재를 찬미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추진시켜 각계의 더욱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책동만 보더라도 박근혜가 추구한 것이 공적인 리익이였는지, 사적인 리익이였는지 명백히 밝혀진다. 다 아는것처럼 박근혜는 권력을 《유신》독재자인 제 에비를 우상화하는 한갓 더러운 수단으로 삼아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강행도 그 일환이었다. 그는 지난해 《역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케병가

해대는 박근혜의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행위는 남조선 각계가 《역사쿠데타》로 규탄할만큼 엄청난 죄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니 얼마나 뻔뻔스럽고 교활무쌍한가. 지금 온 남녘민심이 분노하여 웨치는 퇴진합성에 귀를 닫고 《〈국회〉가 알아서 하라.》며 다 죽은 권력을 지탱해보려고 구차한 오그랑수를 쓰는 것 자체가 《국정》을 계속 통략하고 민심을 참혹하게 짓밟는 더러운 권력야욕의 산물, 용납 못할 망동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가 제아무리 온갖 오그랑수를 다 써도 분노한 남조선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본사기자 김철민

서는 자기의 친인공노할 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버림으로써 퇴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금 명백히 표명하였다.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족제비도 낮짝이 있다는데

박근혜에게는 그마저도 없는 것이다. 하기가야 《대통령》자리에 앉은 첫날부터 자기만을 위한 정치에 매달려왔으니 이 시각도 자기만을 위해 자리킴에 골몰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인간이기에 정치가 혼란에 빠지든 경제가 망가지든 자기가 《대통령》자리에 있기는 하면 된다는 오직 그 하나의 생각만 하고있는 것이다. 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놀음을 벌인것은 정상인으로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하면서 박근혜는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한 정신병자라고 몰아댔는가. 박근혜가 일본에 굴종하여 민족의 존엄을 팔아먹은 그 하나만으로도 탄핵의 리유는 충분하다. 박근혜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남조선의 민심이 바로 소녀상가장물에 어려 있다. 말없는 소녀상은 친일매국역적인 박근혜의 더러운 종말을 고한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언론도 본사기자 김영준

게 따라붙어온 친일파라는 딱지를 떼버리려고 이번 《국정력사교과서》에서 친일파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버렸다. 그리고 박정희가 서민의 괴담을 짜내며 벌렸던 《새마을운동》이라는 케케묵은 《유신》시대의 유물을 요란스레 내세웠다. 제 애비를 우상화하고 제 몸에 체질화된 친일, 친미, 독재, 동족대결책동을 미화하려고 역사의 진실에까지 마구 칼질을

백만명의 남녀로소가 이 추운 겨울날에 거리에 나와 언손에 초불을 들고 《대통령하야》를 목러지게 부르짖어도 박근혜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고 성난 민심의 목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하긴 수백명의 아이들이 바다에 빠져 살려달라고 울부짖고있을 때조차 7시간동안이나 편장을 보며 외면한 행렬한, 살인자이니 민심의 목소리가 들릴리 만무하다. 집권 수년간 인간의 권리를 강그리 짓밟고 우롱해온 박근혜가 지금 이 시각에조차 민심에 정면도전하여 버티기를 하고있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것으로서 그 죄는 더우기 용서받을수 없는 것이다. 하기에 남녘에서 민심의 분노는 더욱 치솟고 징벌의 해불은 더 활활 타오르고 있다. 김연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놀음을 벌인것은 정상인으로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하면서 박근혜는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한 정신병자라고 몰아댔는가. 박근혜가 일본에 굴종하여 민족의 존엄을 팔아먹은 그 하나만으로도 탄핵의 리유는 충분하다. 박근혜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남조선의 민심이 바로 소녀상가장물에 어려 있다. 말없는 소녀상은 친일매국역적인 박근혜의 더러운 종말을 고한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언론도 본사기자 김영준



능력도, 자격도 없는 악녀에게 불복종을 선언하는 남녘인민들



11월 30일



《1차총파업 - 시민불복종선언문》

지난 11월 28일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1차총파업 - 시민불복종의 날》 투쟁에 앞서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주범 박근혜의 즉각퇴진을 요구하는 《1차총파업 - 시민불복종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 전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즉각 퇴진하라. 지난 26일 우리는 또다시 200만의 항쟁으로 모였다. 분노한 민심이 두렵지 않는다. 이미 교사된 권력을 구차하게 연명하는것은 국민에게 치욕이다.

지금 당장 퇴진하라. 이미 저지른 불법정책만도 차고넘친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것마다 재앙이다. 재벌청부인 로동계약은 로동자와 청년에게 재앙이다. 《국정교과서》는 력사의곡이고 미래세대에게 재앙이다. 미국만을 위한 《싸

드》 배치결정은 전민족에게 재앙이다.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는 《재벌천국 - 서민지옥》이다. 《〈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2의 《울사특약》이고 일본군성노예범죄에 관한 《합의》는 굴욕적인 야합이다. 모두 무효이고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은 박근혜의 모든 《정책》을 폐기하는것이어야 한다. 박근혜는 단독범이 아니다. 공모, 공범, 교사 세력들이 줄줄이 엮여있다. 레외없이 처벌하고 청산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친박, 비박 똑같다. 불법정치공작을 일삼는 정보원과 권력의 호위무사인 정치경찰은 청산해야 할 부역자이다. 원하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외곡해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수구언론은 공범이고 교사범이다. 임기없는 무한권력으로 정치권

력을 좌지우지해온 재벌자본은 공범을 넘어 몸통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은 모든 부역자를 청산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11월 30일 《박근혜 즉각 퇴진!》, 이 하나의 요구로 총파업과 시민불복종에 돌입한다.

《국정》을 룡단하고 마비시킨 불법권력에 맞선 정당하고 의로운 저항행동이다. 로동자는 파업으로, 농민은 아스팔트농사로, 상인은 철사로, 학생은 휴학으로 함께 한다.

모든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위해 하루일손을 놓고 함께 할것이다.

단 하루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2차총파업과 더 큰 시민불복종행동으로 박근혜퇴진의 날을 앞당길것이다. 우리는 200만초불항쟁과 총파업 그리고 시민불복종으로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력사의 단두대에 세울것이다.

본사기자



점점 드러나는 《7시간의혹》

사람들은 수백년을 내려오며 번성하던 대도시를 불태우고 회색이 만연하여 바라보며 즉흥시를 읊었다는 고대로마의 황제 네로의 광적인 이야기를 알고있을 것이다.

남조선집권자 박근혜를 네로와 결부시킨다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라난 사실과 자료들이 박근혜야말로 《치마두른 네로》, 네로보다 더 악독한 살인독재자, 광적인 추물이라는 것을 시사 해주기 때문이다.

《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서 가장 해명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박근혜의 《7시간의혹》이었다.

수백명의 생명을 얼마나 지 구원할 수 있었던 《황금시간》에 박근혜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 《7시간의혹》이었다.

가 배가 완전히 침몰한지 도 퍼그나 지난 오후 5시 15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 나타나 초접없는 눈길로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는 일도당도않는 물음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 리는 것이다.

즉 마취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있다.

남조선언론들이 《세월》호참사 하루전인 4월 15일에 《국무회의》에 참가한 박근혜의 얼굴과 참사이후 《대국민담화》에 나온 박근혜의 얼굴을 대비한 사진들을 공개하였는데 거기서 주목할 것은 눈주름에 대한 성형수술을 한 것이 확인하게 알 리는 것이다.

거기서 주목할 점은 그 뿐이 아니다.

아니라 성형수술을 했다 면 《세월》호의 수많은 생명들을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자로 된다.

바로 박근혜는 살인악녀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감추기 위해 《해명》을 못 하게 방해하여온 것이다.

《7시간의혹》을 밝혀 주는 자료들이 시사하는 다른 면도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2014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구입한 모든 의약품을 조사한 결과 전신마취제 국소마취제, 탈모제 등을 대량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전하였다.

그중 《제2의 프로폴》로 불리우는 에토미데 이트리프로주는 마약과 같은 것으로 본다 는 것이다.

그것이 박근혜를 위한 구입이었다는 것이 여론의 평이다.

《7시간의혹》 속에 밝혀지는 박근혜의 정체는 고대의 폭군 네로보다 더하면 더한 악녀, 세상에 둘도 없는 추악녀라는 것이다.

그래도 폭군 네로에게는 종말의 순간에 제 손으로 제 목을 찌를 《담》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치마두른 네로》는 맞아죽으면 죽이지 스스로 권력을 내놓지 않겠다는 악녀의 본성으로 민심의 《하야》요구에 버티기로 발악하고 있다.

《박근혜하야》의 초 불이 아니라 《박근혜 처형》의 들불로 타올라야 한다는 것이 회세의 살인 악녀, 추악한 광녀인 박근혜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요구이다.

최근 박근혜, 최순실정 치추문사건과 함께 드러나고 있는 자료들에는 《세월》호참사의 《7시간의혹》을 밝혀주는 객관적 사실들도 담겨져 있다.

우선 박근혜가 《세월》호침몰사고당시 청와대안방에서 마취의 상태에서 얼굴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자료다.

남조선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은 6개월에 한번씩 얼굴성형외과 의사를 청와대에 데리고 박근혜의 얼굴주름을 펴는 수술을 해주었다고 한다.

《세월》호침몰당일에 박근혜의 얼굴성형수술을 한 《의혹》을 받고있는 한 의사는 《그날에 휴진을 하고 팔포를 쳤다.》고 했지만 그의 의약품관리대장을 조사한 결과 참사당일에 수술용 마취제로 쓰는 프로폴 1병을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취제의 회복이 7시간 걸린다고 할 때 오전 10시에 《세월》호침몰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박근혜

《세월》호참사 당일의 7시간동안 청와대안방실과 비서실이 15번이나 박근혜에게 보고하였지만 《세월》호구조의 가장 긴급한 시간인 12시 50분까지 한건의 지지도 없었고 박근혜를 본 사람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은 《고고만 받고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벌의 직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당시 《판》을 하고있었다면 이는 직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새누리당》내에서도 박근혜가 《7시간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있는 것은 《폭동이 일어날것 같기때문》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우연한 말들이 아니다. 침몰사건을 보고받고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죄무래만》으로 되는 것이고 구조대책이

《통일뉴스》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비상국민행동)이 11월 28일 박근혜역도 검찰의 대면조사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즉시 이를 배격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단체는 범죄자이며 피의자인 박근혜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하였다.

박근혜가 추문사건에 대한 자기의 직접적인 책임이 확인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힌것은 지난 4일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한 말을 또

다시 뒤집은 것이라고 단체는 폭로하였다.

단체는 이로써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단죄하였다.

10일간이나 공식일정이 없었던 박근혜가 시간이 없어 조사에 불응한다니 실소를 금할수 없다고 단체는 비난하였다.

단체는 피의자 박근혜가 더이상 증거 조작과 은폐를 하지 못하도록 체포를 통한 강제수사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차국민행동때부터 국민들이 일관하게 주장한것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하야》였다 고 하

《7시간의혹》 - 《치마두른 네로》 - 《국무회의》 - 《대국민담화》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남조선의 정치추문사건의 주인공의 하나는 정유라이다. 꼭 두각시 《대통령》을 움직이는 《비선실세》인 에미의 힘을 등대고 제 세상처럼 날치며 대학에도 특혜입학하고 1년 365일기간 단 17일동안만 교실에서 공부하고 도 최고의 점수를 받고 상을 받을것은 다 받아 청소년모두의 증오를 받는 정유라.

알고보니 권력을 휘둘러 특혜입학을 하고 온갖 부정행위를 다 저지른것은 정유라만이 아니었다. 오늘의 《청와대공주》를 만든 박근혜역시 일찌기 부정 특혜입학자였다.

박근혜가 12살 나던 1964년 명문으로 꼽히던 서울 성심여자중학교의 엄격한 입학규정이 박근혜때문에 딱 한번 달라졌다고 한다. 원래는 여러 과목이었는데 박근혜가 입학시험 치는 그해에 시험과목이 《국어》와 산수 두 과목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학교

에 입학한 다음해부터는 원래대로 입학시험이 다과목으로 다시 바뀌었다. 그때 같이 입학한 학생들도 《대통령》의 딸덕분에 시험을 쉽게 쳐서 입학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애비가 쿠데타로 탈취한 권력덕분에 당시 《박근혜어린이》는 학교에 특혜입학한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박근혜를 위해 왜 제일 쉬운 《국어》와 빼놓으면 말썹이 일어날 산수 두 과목만 시험과목으로 만들었겠는가.

이것은 박근혜의 천박한 지적능력때문이라고 보아진다.

한때 《새누리당》에서 박근혜의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전여욱이 자기가 박근혜에 대해 느끼고 혐오를 가지게 된 내용을 피력한 말이 있다.

《박근혜는 늘 짧게 대답한다. 〈대전은 요?〉, 〈참 나쁜 대통령〉 등. 국민들은 처음에는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했다. 그러나 사실 아무 내용없

다. 어찌 보면 말배우는 어린애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수도, 되어서도 안된다. 정치적식견, 인문학적콘센트도 부족하고, 신문기사를 깊이있게 리해 못한다. 그녀는 이제 말배우는 어린아이수준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는 일이다. 박근혜가 최순실이와 같은 한갓 선무당에게 《국정》을 통째로 섬겨차친 리면에는 이런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정사》를 볼수 없는 극도의 무능, 무지도 깔려있다.

3차례나 《대국민사과담화》라는것을 발표하면서도 남이 써준 글줄을 줄줄 되받아 외우고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달아빠 무능한 《대통령》의 암둔한 머리는 배안에서부터 생긴 것이었다.

본사기자 동창현

비상국민행동 수사를 거부하는 역도를 강력히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비상국민행동)이 11월 28일 박근혜역도 검찰의 대면조사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즉시 이를 배격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단체는 범죄자이며 피의자인 박근혜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하였다.

박근혜가 추문사건에 대한 자기의 직접적인 책임이 확인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힌것은 지난 4일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한 말을 또

다시 뒤집은 것이라고 단체는 폭로하였다.

단체는 이로써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단죄하였다.

10일간이나 공식일정이 없었던 박근혜가 시간이 없어 조사에 불응한다니 실소를 금할수 없다고 단체는 비난하였다.

단체는 피의자 박근혜가 더이상 증거 조작과 은폐를 하지 못하도록 체포를 통한 강제수사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차국민행동때부터 국민들이 일관하게 주장한것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하야》였다 고 하



본사기자

요즘 남조선항간에서는 박근혜에 대해 《미숙아》, 《세살 난 아이》, 《발달장애자》, 《정신년령이 어리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뉘다.

아무 일에도 맹랑인 텅 빈 머리, 물어보면 더듬거리거나 때와 장소없이 황당하게 내뱉는 말, 제생각은 없고 남의 손에 놀아난 꼭두각시, 일이 러지면 헤뼀하며 싸다니는 속성, 울어야 할 때 웃고 웃지 말아야 할 때 웃는 천박함...

인간치고는 저능한 백치이고 무능한 바보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동물에 비기면 무엇이 될것 같습니까.

네, 하등동물인 아메바에나 비길수 있을런지.

좀 야박한 감은 있으나 박근혜의 언행을 바서는 안될것도 없습니다.

아메바는 사람이 사는 어디서나 발견할수 있는 단세포동물입니다.

단세포이니만큼 모든것이 단순합니다.

목적의식적이 없이 그냥 먹고 싸고 움직이는것밖에 모르는.

박근혜도 그와 비슷합니다.

뭘 먹는가?

청와대에서는 철갑상어알이니, 혼제한 런어니, 바다가재니, 송로버섯이니 하는것들을 포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피》를 먹습니다.

지금의 특대형추문사건을 아시지요.

재벌들의 돈을 몽땅몽땅 뜯어내어 퇴임후 준비를 착실히 하였는데 그 재벌들의 돈이란 그대로 인민들의 고혈이 아닙니까.

《세월》호의 아이들이 《가만히 있이라.》는 말에 속아 원통함으로 차디 찬 바다물속에서 눈을 감지 못할 때, 그 부모들이 얼굴이 까매 가슴을 쥐여 뜯을 때 박근혜는 그들의 혈세로 눈가의 주름을 없애는 성형수술을 했는지 모르겠나.

다른것은 그만두고라도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마련해주었다는, 3일에 1번씩, 1년에 130여벌을 갈아입는다는 옷, 지금은 1만 4 000US\$나 한다는 《명품가방》 그리고 신발, 청와대본관에 등지른 3개의 고급침대 등 박근혜가 입고 쓰고한것도 인민들의 혈세를 갈취한것이니니 참 억이 막힙니다.

지어 남조선인민들이 《아이들이 불가봐 부끄

럽다.》고 한것처럼 혈세를 뿌리며 마약에다 성기능개선치료약까지 사들였다는것입니다.

먹는 문제에서는 세균이나 말류를 먹고사는 아메바가 박근혜보다 더 나을겁니다.

무엇을 배설하는가.

죽대결, 친미친일사대... 그 독성이 얼마나 센지 정치, 경제, 문화, 력사 등 남조선사회전반이 부정부패에 중독되었고 《국정》통단으로 마비되었습니다.

북과 남이 애써 마련한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고

《아메바》이니, 《북붕괴》니를 떠들며 전쟁소동을 벌리는 중에 북남관계는 아예 죽어버렸고 그걸로 동족까지 《질식》시키려 합니다.

아메바가 간농양, 적리 등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된다는것은 알고있지만 박근혜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와 민족, 력사를 아예 병들어 죽게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이 반대하는데 《싸드》배치는 강행, 민족이 증오하는데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 백년속적에 제침의 다리를 놓아준다는데도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체결... 이런 못된 인간이 하등

동물인 아메바처럼 싸다니기는 얼마나 잘 싸다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위기가 닥치면 해외로 달아나고 그렇게 달아나면 새로운 위기가 또 터지고.

대표적인것만 보아도

늠이던 닥치는대로 끌어안고 입맞추고 춤추고 고 유한 조선말은 어디 뺨개치고 꼬부랑말로 씨부렁 대다니니 도대체 어느 민 족, 어느 나라 종자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원시동물인 아메바의 조건반사처럼 자국이 가면 즉시 반응하는 《아메바인간》인지, 아니면 미국인과 일본인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아메라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의 출신, 《국적》이 불명하다는 의문도 떠오릅니다.

집안에서도 근심이고 집밖에 나가도 근심이며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를 《우환거리》라고도 합니다.

하등동물이던, 불량인간이던 안팎으로 우환거리리는 제때에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하야》, 《박근혜퇴진》을 위해 초불을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위기때면 해외로 달아나던 박근혜가 지금은 진짜 아메바의 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환경조건이 불리해지면 피막으로 둔갑을 하고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유지

만평 《아메바》

《아메바》, 어떻습니까. 《리명박근혜》(리명박+박근혜), 《박피아》(박근혜+마피아), 《하야하그라》(하야+비아그라) 등 남조선인민들의 풍자수법을 빌린다면 《아메바》(아메바+박근혜)이라고 하면 좀 낫겠는지요.

본사기자 김 현

《아메바》, 어떻습니까. 《리명박근혜》(리명박+박근혜), 《박피아》(박근혜+마피아), 《하야하그라》(하야+비아그라) 등 남조선인민들의 풍자수법을 빌린다면 《아메바》(아메바+박근혜)이라고 하면 좀 낫겠는지요.

본사기자 김 현

《아메바》, 어떻습니까. 《리명박근혜》(리명박+박근혜), 《박피아》(박근혜+마피아), 《하야하그라》(하야+비아그라) 등 남조선인민들의 풍자수법을 빌린다면 《아메바》(아메바+박근혜)이라고 하면 좀 낫겠는지요.

본사기자 김 현

《아메바》, 어떻습니까. 《리명박근혜》(리명박+박근혜), 《박피아》(박근혜+마피아), 《하야하그라》(하야+비아그라) 등 남조선인민들의 풍자수법을 빌린다면 《아메바》(아메바+박근혜)이라고 하면 좀 낫겠는지요.

본사기자 김 현

《아메바》, 어떻습니까. 《리명박근혜》(리명박+박근혜), 《박피아》(박근혜+마피아), 《하야하그라》(하야+비아그라) 등 남조선인민들의 풍자수법을 빌린다면 《아메바》(아메바+박근혜)이라고 하면 좀 낫겠는지요.

본사기자 김 현

《아메바》, 어떻습니까. 《리명박근혜》(리명박+박근혜), 《박피아》(박근혜+마피아), 《하야하그라》(하야+비아그라) 등 남조선인민들의 풍자수법을 빌린다면 《아메바》(아메바+박근혜)이라고 하면 좀 낫겠는지요.

본사기자 김 현

《아메바》, 어떻습니까. 《리명박근혜》(리명박+박근혜), 《박피아》(박근혜+마피아), 《하야하그라》(하야+비아그라) 등 남조선인민들의 풍자수법을 빌린다면 《아메바》(아메바+박근혜)이라고 하면 좀 낫겠는지요.

본사기자 김 현

어떤 화를 몰아올지 모를 특통재앙거리

범죄와 공포는 항시적인 동반자이며 공포는 광증을 낳는 법이다. 멸망에 직면한자들의 사고와 행동에서 표현되는것이 바로 광증이다.

특대형추문사건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군부호전광들을 내몰아 북침전쟁책동에 매달리고있는 사실이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

지금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북이 〈국정공백〉을 틈타 도발》 할것이 예견된다는 황당한 꾀변을 늘어놓으며 《안보불안》과 《안보위기》에 대해 달보고 짓는 개처럼 마구 짓어대고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부의 우두머리들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해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것을 열어 벌려놓고 북침전쟁계획을 모의하는데 이어 특수전사령부, 남해안의 경계작전부대 등을 주된 개처럼 싸다니며 《북의 도발에 대비한 강력한 대비태세유지》니,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이니 뭐니 하는 호전적인 폭언들을 마구 내뿜으면서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뿐만아니라 남조선호전광들은 11월 29일에는 서해해상분계선일대에서 각종 구경의 포와 직승기를 동원하여 도발적인 해상사격훈련을 벌여놓았으며 이

보다 앞서 24일부터 이들 동안 동, 서, 남해의 전해역에서 그 누구의 《해상도발위협》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함선과 전투기들을 동원하여 대규모해상기동훈련과 대잠수함훈련, 해상차단훈련을 감행하였다.

이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은 가뜰이나 침예한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의 광란적인 동족대결고취와 북침전쟁연습책동은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고 멸망으로 몰아가고있는 박근혜 《정권》의 출로를 정세악화와 동족대결에서 찾아보려는 고의적인 도발망동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부패무능한 청와대악녀를 매장하기 위한 인민들의 대중적항거기운은 무섭게 치솟고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진상이 날날이 폭로되고있는 속에 인민들의 반박근혜투쟁이 급속히 고조됨으로써 반역무리들은 헤여날수 없는 파멸의 위기에 몰리고있다. 11월 30일에는 허수아비 《대통령》이며 중대범죄자인 박근혜의 즉각퇴진을 요구하여 각계층의 불복운동이 거리와 학교, 일터, 상가마다에서 대중적으로 벌어져 역적패당을

더욱 혼비백산케 하였다. 물에 빠진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궁지에 몰린 박근혜역적패당은 《안보》를 구실로 민심의 분노한 투쟁기운을 억누르고 내외여론의 이목우를 거기에 돌려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북침전쟁책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는것이다.

막다른 궁지에 몰릴 때마다 《북의 도발과 위협》을 떠들어대며 《안보》소동을 일으켜 출로를 찾으려 하는것은 보수세력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리승만이 심각한 정치적위기의 탈출구를 전쟁도발에서 찾고 끝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것은 그 하나의 대표적실례이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을 격화시켜 《안보위기》를 조장하여 거기에 여론의 초점이 쏠리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나 죽음에 처한 박근혜에게 숨통을 열어주려는 군부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매우 위험한 사태를 예고하고있다.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려 쟁쟁없이 살구명만 찾고있는 박근혜 역시 마지막박약으로 북침도발과 전쟁에 나서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권력야욕에 환장한 청

와대악녀는 더러운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뜨우려는것도 서슴치 않을 극악한 대결광신자이다. 청와대악녀의 부추김밑에 감행되는 남조선호전광들의 부질없는 전쟁개기는 남조선땅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줄수 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산송장이 된 박근혜를 살려보려고 제 죽을줄 모르고 전쟁광기를 부리고있지만 그것은 저승길에 오른자들의 단말마적인 최후박약이다.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수 있어도 제가 만든 화는 피할수 없다는 말이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박근혜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청와대악녀가 군부것들을 옆구리에 끼고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제아무리 날뛰어도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

잔명부지를 위한 역적도발책동과 《안보위기》소동은 오히려 남조선에 온갖 화를 몰아오는 특통재앙거리인 박근혜를 하루빨리 제거해버리려는 민심의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주 광 일

200만이 《종북》인가

세살적 버릇 여든간다고 박근혜패당의 그 못된 동족대결모략기질은 죽어가는 순간까지 달라지지 않고있다. 민심의 즉각퇴진소 불이 날로 더욱 활활 타오르자 또 케케묵은 《종북》카드를 꺼내 든것이다.

《새누리당》안의 친박패거리들은 《민주로총의 뒤에 큰 조종세력이 있다.》느니, 《야당들의 뒤에는 준비된 북의 공작원이 있다.》느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배후에도 종북주의교사가 있다.》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나발들을 불어대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각계층이 박근혜퇴진을 요구하여 매일과 같이 시위를 벌리고 주말에는 100만, 200만명이 초불을 들고 거리로 떨쳐나서고있다. 그속에는 20, 30대의 청년학생들은 물론 10대의 중고등학생들과 전통적인 《보수층》이라고 하는 60, 70대의 로인들도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때는듯이 열도당도않은 여론도 내들리고있다.

한편 《박사모》를 비롯한 한우보수떨거지들은 각계층의 투쟁을 《종북파괴의 국가전복기도》

와 관련된것으로, 《주력은 12만 종북간첩단》이라고 날조된 여론을 퍼뜨리고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집회장인 광화문광장에서 북의 고정간첩이 흘린 로동당 당원증이 발견되었다.》는 류언비어까지 확산시키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추위를 이기며 남녘의 거리거리에서 타면지고있는 수백만 초불의 민심, 박근혜 즉각퇴진을 요구하는 수천만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금의 최악의 궁지에서 벗어나보려는 역적패당의 단말마적인 발악상을 보여주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각계층이 박근혜퇴진을 요구하여 매일과 같이 시위를 벌리고 주말에는 100만, 200만명이 초불을 들고 거리로 떨쳐나서고있다. 그속에는 20, 30대의 청년학생들은 물론 10대의 중고등학생들과 전통적인 《보수층》이라고 하는 60, 70대의 로인들도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때는듯이 열도당도않은 여론도 내들리고있다.

결국 이들도 《북의 조종과 지령》에 의해 초불시위에 나섰다라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남조선사회

가 통채로 《북체제화》되었던 말인가.

이런 황당한 주장을 누가 끈이 들겠는가. 보수패당의 《북풍》소동, 반공화국모략선전은 다 이런 식이다.

이따위 모략패대국은 남조선 각계층의 대중적투쟁을 어떻게 하나 《북의 조종》에 의한것으로 몰아감으로써 진보와 보수의 리념대결로 만들어놓고 허물어진 보수지지층을 결집시켜 기울어져가는 형세를 조금이라도 수습해보려는 박근혜패당의 음흉한 기도의 산물이다.

얼마전부터 《새누리당》대표가 당내형편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령》을 받고있다는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러한 《북풍》모략소동이 박근혜의 지휘조종에 따라 청와대졸개들에 의하여 고안되고 청와대의 지령밑에 《새누리당》의 친박근혜파와 극우보수단체거리들에 의해 연출되는 광대극이라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이다.

박근혜의 독사같은 기질과 교활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반박근혜투쟁의 도수를 더 높여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절 민

아시아판 《나토》를 조작하려는

미국의 검은 손길

알려진것처럼 지난달 23일 남조선당국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하였다. 남조선보수패당이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여 수백만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들고 투쟁을 벌리고있는 때에 각계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협정체결을 서둘러 강행한 배경에는 미국의 막후조종과 압력이 크게 작용하였다는것이 지금 내외의 일치한 평가이다.

미국은 일찍부터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에 아시아판 《나토》인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여 저들의 대아시아지배전략을 실행해보려고 책동하여왔다. 그를 위해서는 수하졸개들이 일본과 남조선사이에 군사적협력관계를 법적으로 확고히 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하여 미국은 남조선과 일본사이에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얼마전 남조선주재 미국 부대사였던 인물이 남조선언론에 미국이 남조선당국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빨리 체결하라고 강박하였다는 사실을 실토했것을 비롯하여 그를 립증하는 자료들이 련속 나타나고있다.

협정이 체결되자마자 미국의 백악관과 국방부 등이 련이어 나서서 《환영》이니,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조치》니 뭐니 하며 추어준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이 남조선보수패당에게 《짜드》배치를 내리먹인데 이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협의의 우위》를 차지하고 주변국들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패권전략실행은 더욱 본

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조선반도주변나라들속에서 《남조선과 일본이 이번 협정으로 군사동맹을 하면서 미국주도의 동북아시아전략적균형에 큰 손상을 가져온다.》는 반대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그에 대한 명백한 실증이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당국과 일본반동들의 군사적결탁을 심화시키기 위해 조선반도유사시 남조선군과 일본 《자위대》가 군사물자를 서로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하도록 부추기고 압력을 가하고있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군사적긴장과 전쟁위기를 몰아오는 장본인

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박근혜패당은 이번 협정체결로 일본반동들의 군국화와 조선반도재침의 발판을 깔아주고 아시아판 《나토》를 조작하려는 미국의 침략적인 세계지배전략실현의 통략물로 남조선을 완전히 내맡긴 천추에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 사대대국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

남조선 각계층은 남녘 땅을 대국들의 핵전쟁마당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책동을 절대로 묵인하지 않고있으며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일상전들에게 굴종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서슴없이 팔아먹는 특등매국노 박근혜도들 하루빨리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대국협정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최석현

미국에게 간도, 쓸개도 다 내준다

지금 남조선에서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보수당국의 친미사대굴종행위를 규탄배격하는 각계층의 투쟁기세도 한층 높아가고있다.

11월 21일 남조선방위사업청장이라는자가 래년 1월에 들어서게 될 새 미 행정부가 남조선에 《방위비분담금》인상을 요구한다던 《어쩔수 없이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떠벌어댄것으로 하여 각계의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온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

남조선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은 미군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고있으며 이것은 국내총생산액 대 부담금비율로 볼 때 세계에서 첫번째 손가락에 꼽힌다고 한다. 미국 《헤리티지재단》도 《2017년 미국군사력보고서》를 통해 현재 남조선이 《방위비분담금》외에 《수도 및 인력제공, 각종 수주료감면》 등 직간접지원으로 연간 약 9억US\$의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있다고 밝혔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남조선당국의 친미사대적 《충성도》가 어느 정도 인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197차 《주 〈한〉 미군지위협정

합동회의》에서는 남조선당국이 미강점군의 전기료인상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그것 역시 묵살당하고 래년에도 종전처럼 남조선의 주력용, 일반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요금을 받는것으로 합의되었다.

이것은 상전에게 발라맞출수만 있다면 인민들의 혈세를 통채로 섬겨바쳐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천하대국역적무리가 다름아닌 박근혜를 두목으로 하는 친미보수세력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최악의 위기에 허덕이며 벼랑끝으로 내몰린 박근혜패당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성사시키려고 분주당을 피우는가 하면 《짜드》배치를 기어이 강행하려 하고있다.

이것도 모자라 강점군에 역대의 돈을 퍼주겠다고 자청하면서 미국상전의 환심을 사보려고 추악하게 높아대고있는것은 오직 상전의 바지가행이에 매달려 간도쓸개도 다 꺼내주면서라도 비루한 목숨과 권력을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는 매국노적추태가 아닐수 없다.

오죽했으면 국제사회가 남조선을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조소하고 청와대는 《정동판저》(미국대사관)가 다스리고있

다고 비평하고있었는가.

상전인 미국까지도 보수패당의 친미굴종적추태에 등을 두드려주면서 도 돌아앉아서는 《북조선은 믿지만 미국이 존경할만 한 적이고 말 잘 듣는 〈한국〉은 꼽지만 미국이 무시하고 경멸해되는 〈동맹〉》이라고 야유하고있는 형편이다.

박근혜보수 《정권》의 이러한 친미사대굴종행위에 대해 야당들과 사회각계는 《미국에 대한 백기투항》, 《미국에 혈세를 퍼주겠다는것》 등으로 강하게 단죄규탄하면서 굴욕적인 《대미조공외교》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민족의 재앙거리인 이런 썩개빠진 친미역적들이 존경하는 한 남조선인민들에게 차례적인 수치고 불행뿐이다.

본사기자 김 절 진

비린내 맡은 강아지 매 맞아 허리가 부러져도 드물통앞에 가서 죽는다는 말이 있다.

최근 남조선외교부장관 윤병세가 노는 꼴이 꼭 그격이다.

얼마전 윤병세는 오스트랄리아에서 진행된 《제8차 중견국협의체(미라) 외교장관회의》라는데 참가해서 공화국의 핵과 《인권문제》를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반공화국제체압박공조를 구걸하는 구차스러운 놀음을 벌여놓았다. 그런

미친 병세의 발작증

가하면 유엔에서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에 누구보다 앞장서 날뛰고 있다.

삶은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 일이 아닐수 없다. 도대체 제 집안꼴이나 보고 그런 소리를 뱉는가.

지금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인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하여 남조선은 국도로 혼란되고 세계 각

계의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윤병세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이런 때에 꼭두각시 《대통령》의 수족이 되어 덮어놓고 아무굴종해온 자기의 지나온 죄과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옳을것이다. 《국정》을 송두리채 짓몽개 박근혜가 이제 더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권력의 자리나 내놓으라는 민심의 강력한

요구에 비추어보아도 그렇다.

그런데 윤병세는 아직도 외세굴종과 동족대결의 미친 바람을 계속 일으키고있으니 병신도 이만저만한 병신이 아니라 해야 할것이다.

상전의 요구라면 백년속적인 일본과 역겨운 입맞춤을 서슴없이 해대는 것이 바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며 《현대판 리

완용》으로 조소받고있는 윤병세이다.

그가 악의에 차서 동족을 헐뜯고 외세의 힘을 빌어 헤치려들어도 참다운 인권이 꽃피고 자위의 핵강국으로 위용떨치는 공화국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윤병세는 비루먹은 개처럼 여기저기 싸다니며 역겹게 놀것이 아니라 가라앉고있는 《박근혜》호에서 이제 제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지나 걱정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황진옥